



특집 _ 모국서 공부할 34개국 114명 재외동포 장학생 선발 모국과 거주국 상생발전 위한 가교 역할 다짐
화제 _ 한인 역사박물관 '미주 독립유공자 전집' 출판기념회 조국 광복에 힘쓴 215명 '애국지사의 꿈'



신라시대 대표 유물 기마인물형 토기 '어린 왕자' 주전자



1. 기마인물형 토기 하인상, 높이 23.4cm
2. 기마인물형 토기 주인상, 높이 26.8cm
3. X선으로 본 기마인물형 토기



국보 91호 기마인물형 토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문화재이다. 1924년 경주시 노동동에 있는 6세기 초의 금령총에서 발굴될 때에도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지만 지금도 신라 문화를 대표하는 유물로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돼 관람객의 사랑을 받는다. 주인과 하인으로 보이는 인물이 각각 말을 탄 모습인 이 유물은 말 탄 사람의 의복과 각종 말갖춤이 사실적으로 표현돼 신라인의 생활상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자료이다.

발굴 당시 문힌 사람은 머리에 금관을 쓰고 금귀고리와 허리띠를 했으며 허리에는 칼을 찼다. 유물이 화려해서 신라 왕족의 무덤으로 여겨진다. 가는고리 귀고리와 칼을

찼으니 남자가 분명한데 특이한 점은 허리 띠 길이가 다른 것과 달리 무척 짧다는 것이다. 금관도 다른 금관에 비해 작아서 무덤 주인은 어린아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무덤 주인은 어려서 죽은 왕자일지도 모른다.

기마인물형 토기는 말을 탄 사람을 형상화한 조각 작품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숨은 기능이 있다. 말 등에는 깔때기처럼 생긴 구멍이 있어 액체를 넣고, 말 가슴에는 대롱이 있어 액체를 따를 수 있다. 말 내부는 비어 있어 240cc 정도를 담을 수 있다. 이 토기는 신라 왕실에서 술이나 물을 따르는 데 쓰던 주자(注子)였다.

주인으로 여겨지는 기마인물형 토기는 갑



옷과 비슷한 바지를 입고 칼을 찼다. 하인으로 여겨지는 토기는 손에 방울을 들고 있어 앞장서서 하늘로 주인을 안내하는 듯하다. 실제로 발견 당시 하인상이 주인상 앞에 놓여 있었다. [▶](#)



표지 이야기

재외동포재단은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 34개국에서 114명의 재외동포 장학생을 선발해 3월 3~4일 전라북도 무주의 태권도원에서 장학증서 수여식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재단은 재외동포 사회와 모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차세대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초청 장학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02 한국의 얼** 신라시대 대표 유물 기마인물형 토기 '어린 왕자' 주전자
- 04 특집** 모국서 공부할 34개국 114명 재외동포 장학생 선발 모국과 거주국 상생발전 위한 가교 역할 다짐
- 06 동포소식** 한국계 임다미, 호주 대표로 올 유로비전 가요제 참가 외
- 09 동포 캘린더** 네이멍구 파라다이스 한류 백화점 9월 28일 개장 외
- 10 기획** 건설업 진출로 시작된 말레이시아 한인 사회 한류 열풍에 동포 사회 동반 성장
- 12 화제** 한인 역사박물관 '미주 독립유공자 전집' 출판기념회 조국 광복에 힘쓴 215명 '애국지사의 꿈'
- 14 글로벌코리안** 에세이 '아들이 있는 풍경' 한국어 출간한 재미 작가 이혜리 도쿄서 '샘물 한글학교' 이끄는 전정선 교장 호주 공영방송 SBS의 윤재은 PD
- 16 지구촌통신원** 베트남서 인기 배우 등 참여한 'K-컬처 서포터즈' 발족 "동남아 한류 전도사 될게요"
- 17 동포정책 Q&A** CIS지역 고려인 동포 방문취업 제도 개선 가족 복수비자 발급 등 편의 확대
- 18 한민족 공감** 박근혜 대통령,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 30억 달러 금융 협력 양해각서 체결
- 19 OKF 뉴스** "글솜씨 뽐내세요" 재외동포 문학상 공모 외
- 20 동포의 창** '싱가포르 디자인 위크'에 선보인 디자인 한류 아시아, 유럽이 K-디자인 주목
- 22 동포문학** 별꽃 먹는 청소부 신현숙 _ 호주 _ 2015 동포문학상 시부문 가작
- 23 우리말 배워봅시다**
- 24 고향의 맛·멋** 충남 보령시 오천항의 키조개 청정해역서 맛보는 천상의 맛
- 26 재단 공지**

발행인 : 조규형 **등록번호** : 문화-라 08249
발행처 : 재외동포재단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번지 외교센터 6층
 전화 3415-0100 팩스 3415-0117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 재외동포재단 홍보문화사업부 pr@okf.or.kr
제작 : 연합뉴스 **인쇄** : 평화당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전세계 70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웹진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www.korean.net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매월 발간되는 '재외동포의 창' 웹진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모국서 공부할 34개국 114명 재외동포 장학생 선발 모국과 거주국 상생발전 위한 가교 역할 다짐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조규형)은 재외동포 초청 장학생을 선발해 전라북도 무주 태권도원에서 장학증서 수여식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장학증서를 받은 장학생은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 34개국에서 온 114명으로 학사과정 53명과 석·박사과정 61명이다.

이들은 2015년 5월에 선발돼 일부는 2015년 2학기에 학업을 시작했고, 대부분은 어학연수를 마치고 2016년 1학기부터 국내 대학 및 대학원에 입학했다.

재단은 선발된 학생에게 ▲학비 ▲기숙사비 등 생활비 ▲왕복 항공료 ▲한국어 연수 경비(6~8개월) ▲역사 문화 체험 등의 지원과 혜택을 주고 있다.

3월 4일 태권도원 대강당에서 열린 장학증서 수여식에 앞서 학생들은 유학생생활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한 학사지침 설명회와 선후배 간 대화의 시간에 참가했다.

장학생 출신으로 경험을 전한 예동근 부경대 교수는 “모국 수학의 기회를 살려 박사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한눈팔지 않고 공부한 덕분에 대학에서 최연소 교수로 채용됐다”면서 “유학 온 목적을 잊지 않고 초심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모국에서 재외동포의 존재감이 적다 보니 잘 모르기 때문에 행해지는 차별도 있을 수 있다”며 “환대받지 못한다고 실망하지 말고 스스로 애정을 갖고 적응하려고 노력하면 유학생들이 값진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조규형 이사장은 “모국 유학 기회를 잘 살려서 모두 목표를 성취해 세계 무대에 우뚝 서는 자랑스러운 한민족이 되기 바라며, 나아가 모국과 거주국의 상생 발전을 위한 가교 역할에도 기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아르헨티나에서 온 이화여대 간호학과 1학년 송사라(19·여) 씨는 답사에서 “가정 형편으로 대학 진학을 포기할 뻔했는데 간호사의 꿈에 도전할 기회를 주어 감사하다”며 ‘학업에 열중하면서 태어나 처음 찾은 모국도 제대로 배워보겠다’고 의욕을 내비쳤다.

조선족 출신으로 대전대 한의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한 이송(29·남) 씨는 “할아버지가 항상 그리워했던 모국에서 초청 장학생으로 공부할 하게 돼 무척 기쁘다”며 “한중 양국에서 한의학을 배운 만큼 양쪽의 장점을 살려 한의학계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학생들은 이사장이 주재한 만찬을 즐긴 뒤 중국, CIS, 동남아 등 지역별 간담회에 참석해 서로 포부와 꿈을 이야기하며 교류했다.

학생들은 5일 오전에는 태권도원 강사로부터 한국 전통 무예인 태권도 체조를 배우며 자기 절제와 타인 존중의 정신을 배우기도 했다.

한국외대 국제경영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한 카자흐스탄 출신의 강알렉산더(28·남) 씨는 “태권도를 처음 배웠는데도 몸에 배어있는 듯이 익숙해 신기하다”면서 “유학생들이 낯설지만 한민족이라는 사실이 무척 뿌듯한 만큼 자부심을 갖고 학업에 열중하겠다”며 즐거워했다.

재단 차세대사업부 관계자는 “우수 인재인 장학생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상부상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조기에 구축하도록 올해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워크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재단은 재외동포 사회와 모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차세대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재외동포 우수 학생이 국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초청 장학 사업을 199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910명의 학생이 장학 혜택을 받았으며 현재 277명이 모국에서 수학하고 있다. 학업을 마친 장학생들은 국내와 거주국 등에서 대기업 직원, 대학교수, 연구소 연구원, 법조인, 공무원 등으로 다양하게 활약하고 있다. **▶**



3



4

1.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 초청 장학생을 선발해 3월 4~5일 전라북도 무주의 태권도원에서 장학증서 수여식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2. 올해는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 34개국에서 온 114명의 학사 및 석·박사과정 학생이 장학생으로 선발됐다.
3. 초청 장학생 대표로 선발된 이송(중국)과 송사라(아르헨티나) 학생이 학업에 열중할 것을 다짐하는 선서를 하고 있다.
4. 장학생들은 3월 5일 태권도원에서 ‘태권 체조’ 등을 익히며 태권도의 얼과 정신에 대해 배웠다.

Interview...

어머니 이어 간호사 꿈꾸는 아르헨티나 동포 2세 송사라

“다문화 아이들 돌볼 거예요”

재외동포재단 초청 장학생으로 선발돼 모국에 온 송사라(19·여) 양의 장래 희망은 간호사가 되는 것. 그래서 지난 3월 2일 이화여대 간호학과에 입학했다. 그는 “모국의 도움을 잊지 않고 남을 도우며 살겠다”고 의지를 다지며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돌보는 나이팅게일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저도 이민자 가정의 자녀였기에 사회적 소수자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간호사가 된다면 다문화 가정의 환자를 돌보는 일에 앞장서고 싶습니다.”

아르헨티나 제3의 도시 로사리오에서 태어난 송 양은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한국에서 간호사로 일했던 얘기를 많이 들었다.

그래서 어머니처럼 나이팅게일이 되고 싶었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꿈을 포기하려고 했다. 아르헨티나는 한국과 비교하면 의료 기술도 낙후됐고,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시선도 낮은 편이다. 한국에서 공부해야 원하는 간호사를 할 수 있었던 것.

“우연히 재외동포재단에서 초청 장학생을 모집한다는 사실을 알아 응모했죠. 운이 좋게 선발됐고요. 어려서부터 한인 신문을 읽고, 한자를 배운 덕분이었습니다. 모두 어머니의 도움 때문이죠. 주말 한글학교에 꾸준히 다니면서 모국어를 배워 유학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판단했죠.”

송 양은 “단순히 의사의 보조가 아니라 환자와 의사를 이어주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



한국계 임다미, 호주 대표로 올 유로비전 가요제 참가

호주 최고 오디션 프로그램 '엑스 팩터'(X-Factor)에서 동양인 최초로 우승한 임다미(27)가 올해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 호주 대표로 공식 참가한다. 임다미는 올해 5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의 호주 대표로 3월 3일 확정됐다.

유로비전에 호주 대표가 공식 참가하는 것은 지난해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 스타 가이 세바스찬에 이어 두 번째다. 세바스찬은 지난해 대회 60주년을 기념해 와일드카드로 출전, 5위라는 예상 밖의 좋은 성적을 냈다. 덩달아 마케팅 효과도 좋은 것으로 나타나자 호주는 올해도 참가하기로 했다.

임다미는 약 2억 명의 시청자 앞에서 노래하면



호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포 가수 임다미

서 한 단계 도약할 계기를 갖게 됐으며 아시아계 호주인으로서 호주 사회의 다양성을 알리는 기회도 얻게 됐다고 호주 언론은 전했다.

임다미는 지난해 유로비전 대회에 자신이 참여할 수 없었던 데 대해 다소 실망감을 표시하면서 향후 대회에 참가할 수 있기를 기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에서 태어나 9살 때 호주에 이민한 임다미는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 2개의 정규 앨범을 내며 호주와 아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는 보기 드문 호소력으로 호주 내에 소위 '다미 부대'(Dami Army)라는 견고한 팬층을 거느리고 있다.

뉴욕 한국계 유아 한글 배우기 쉬워진다

미국 뉴욕 시의 한국계 영·유아가 한국어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이 시작됐다. 뉴욕 시는 대한민국 뉴욕 총영사관과 공동으로 3월 8일 뉴욕 플러싱도서관에서 한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Talk to Your Baby'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뉴욕 시의 언어 교육 캠페인의 하나인 이 프로그램은 빌 더블라지오 뉴욕 시장의 부인인 설레인 매크레이가 쓴 동화책 'Love is'를 소수 민족 언어로 번역해 뉴욕 시에 거주하는 소수 인종의 영·유아가 쉽게 배우도록 하는 내용이다. 뉴욕 시는 소수 언어 중 처음으로 한국어를 선택했다.



뉴욕 시는 3월 8일 뉴욕 플러싱도서관에서 한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Talk to Your Baby'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기환 뉴욕 총영사가 한국어로, 매크레이가 영어로 동화책을 읽어 주었다. 뉴욕 시는 'Love is' 한국어판을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뉴욕 지역 한인회, 봉사단체, 직능단체협의회 등 20여 개 한인 커뮤니티가 참석해 뉴욕 시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회도 얻었다.

뉴욕 총영사관은 "한인 동포사회가 뉴욕에서의 역할과 지위를 높일 수 있는 첫 번째 사업"이라면서 "앞으로 교육 분야뿐 아니라

노인복지, 장애인, 여성, 가족 관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라과이 한인들 수재민 돕는 임시 가옥 짓기에 동참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의 파라과이강 연안 항구에서는 지난 3월 6일 태어난 공사판이 벌어졌다. 피약별 아래 망치와 톱을 들고 구슬땀을 흘리는 인원은 무려 350여 명. 대홍수로 집터를 잃은 수재민을 위해 임시 가옥을 짓는 자원봉사자다.

가옥이 모두 들어서면 100채. 가옥은 방 2개, 부엌 등을 갖춘 어엿한 집으로 모델하우스를 연상케 한다. 파라과이 정부와 현지인들이 자국민을 도우려고 마련한 가옥이지만 이 중 5채는 ‘국적’이 따로 있다. ‘메이드 바이 코리아’(Made by Korean). 파라과이 한인들이 십시일반으로 기금을 모아 5채 분량의 예산인 2천500만 과라니(약 520만 원)를 쾌척한 것이다.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의 항구에서 수재민을 위한 임시 가옥을 짓는 사업에 한인 사회가 십시일반으로 마련한 기부금을 보냈다.

이날 공사장에서 ‘일꾼’으로 봉사에 참가한 김진현(31) 씨는 “한국인으로서 파라과이 수재민을 돕는 데 동참하게 돼 뿌듯하다”고 말했다. 어린 시절 파라과이에 이민 간 그는 수건 제조업체 ‘킴스타올’을 설립한 청년 CEO이자 연합뉴스-월드옥타 명예기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말 파라과이를 뒀친 대홍수로 온 나라가 비상사태에 들어갔을 때도 한인들은 긴급 구호물자를 수송하는 등 두 팔을 걷어붙였다. 재파라과이한인부인회는 수백만 원어치의 쌀, 우유, 밀가루 등을 기부한 데 이어 수재민을 위

한 임시 가옥 마련에도 300만 원가량을 쾌척했다. 이밖에 월드옥타(세계한인무역협회) 아순시온지회, 김 대표가 이끄는 킴스타올이 각각 100만 원을 기부했다.

재일 한인 학생이 느끼는 차별 심각… “혐한 시위 두려움다”

일본 도쿄(東京)도 지요다(千代田)구 소재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3월 17일 인종차별 금지법 제정 촉구 집회가 열렸다. 재일 코리안 3세 저널리스트인 나카무라 일성(中村一成) 씨 등으로 구성된 일본 류코쿠(龍谷)대학 인권문제 연구위원회연구회는 집회에서 재일 코리안 학생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일본 내 한국계 학교 재학생의 36.4%(응답자 기준, 이하 동일)가 일본에서 생활하며 재일 코리안에 대한 차별을 느낀다고 답했다. 재일 조선학교 재학생의 경우 차별을 느낀다고 밝힌 이들의 비율이 82.9%에 달했다.

재일 코리안을 겨냥한 헤이트 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3월 17일 열린 인종차별 금지법 제정 촉구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일본 내 차별을 없애자는 뜻을 담은 종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차별·혐오 발언)로 인한 심리적 충격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계 학교 재학생 응답자 가운데 공포를 느낀다고 반응한 이들의 비율은 39.4%였고 분노를 느낀다고 한 이들은 63.6%(복수 선택)였다. 조선학교 학생은 47.3%가 공포를 호소했고 77.2%가 분노를 표명했다. 이번 조사는 작년 4~8월 이뤄졌으며 응답자 가운데 한국계 학교

재학생은 33명, 조선학교 재학생은 1천379명이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일본에 사는 한국인·조선인 등 한반도에 뿌리를 둔 이른바 ‘재일 코리안’이 체감하는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인종차별 금지법을 제정하는 등 일본 정치권이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가기록원 ‘기록으로 보는 재외 한인의 역사’ 발간

1950년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 한 소년이 참전 호주군 제3대대 병사와 마주쳤다. 겁먹은 소년은 군인들에게 총을 쓰지 말라고 간청했다. 굶주리고 겁에 질린 채 호주군에 발견된 소년 최영길은 1968년 6월 20일 호주 최초의 아시아인 초청이민자로 시드니 땅을 밟았다.

현지 유력지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이튿날 지면에 ‘호주군이 받아들인 전쟁고아’라는 제목으로 최 씨의 이야기를 가족사진과 함께 비중 있게 보도했다. 현지 TV 등 여러 언론도 앞다퉈 최 씨를 소개했다. 전쟁 중 최 씨는 자신을 발견한 호주군의 보급·통역으로 근무했고 휴전 후 호주군 ‘전우’를 찾는 과정에서 현지 참전협회의 주선으로 이민길에 오르게



국가기록원은 한인 이주와 관련된 자료를 담은 ‘기록으로 보는 재외 한인의 역사’를 발간했다.

됐다. 당시 호주에는 극소수 한인이 살고 있었지만 ‘백호주의’ 호주 정부로부터 이민 초청을 받은 아시아인은 최 씨가 최초였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한인 이주 150년 역사를 생생히 보여주는 사진, 문서, 신문, 서한, 박물관 등 기록 자료를 정리한 ‘기록으로 보는 재외 한인의 역사’ 자료집을 3월 3일 발간했다. 이 자료집에는 호주에 이민한 최영길 씨를 소개한 시드니모닝헤럴드 기사 등 기록 자료 1천65건과 해설이 담겼다.

국가기록원은 자료집을 국내외 도서관, 학회, 한인회 등 1천700여 곳에 책자와 전자책으로 배포한다. 국가기록원 누리집(www.archives.go.kr)에서도 자료집을 내려받을 수 있다.

시카고 한국계 유권자 1천 명 ‘한인 조기 투표의 날’ 행사

미국 시카고 지역의 한국계 미국인들이 정치적 존재감 부각을 위해 뜻을 모았다. ‘미니 슈퍼 화요일’로 불리는 3월 15일 일리노이·오하이오·미주리·플로리다·노스캐롤라이나 등 5개 주에서 동시에 열린 예비선거(오픈 프라이머리)를 앞두고 일리노이주 쿡카운티 한국계 유권자들이 3월 5일 ‘한인 조기 투표의 날’ 행사를 치렀다. 조기 투표 기간 하루를 정해 한인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3개 도시(글렌뷰·나일스·샴버그)의 조기 투표소에 함께 모여 ‘한 표’의 권리를 행사, 한인 사회의 정치적 역량을 보여준다는 것이 목표다.

한인 유권자 프로젝트 단체 ‘KA보이스’ (Korean American Voice)가 2012·2014년에 이어 3번째 ‘한인 조기 투표의 날’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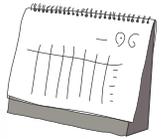


미국 일리노이 주 한인 유권자 프로젝트 ‘KA보이스’ 임원들이 ‘한인 조기 투표의 날’ 행사를 마련한 시카고 교외 도시 글렌뷰의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를 연 시카고 북서부 교외 도시 글렌뷰의 투표소에서는 인근 지역에 사는 동포 약 700명이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줄지어 투표했다. 한인 봉사단체 ‘마당집’과 ‘한인복지회’가 한인회와 함께 행사를 마련한 나일스와 샴버그 투표소에도 각각 120명이 모였다.

투표소에는 한인 사회 각계각층 다양한 세대가 모였고, 2세 자원봉사자들이 연장자를 안내하는 등 분위기가 마치 잔칫날 같았다. 글렌뷰 투표소를 찾은 제이 윤(59·노스

브룩 거주) 씨는 “한인들이 모여 투표한다고 해서 일부러 오늘 나왔”다며 “한인 사회가 하나로 뭉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니 아주 좋다”고 말했다. **▶**



네이멍구 파라다이스 한류 백화점 9월 28일 개장

중국 네이멍구(內蒙古) 자치구 후룬베이얼 시 파라다이스 한류 백화점(회장 유대진)이 9월 28일 개장한다. 개장을 앞두고 백화점을 채울 한국 상품을 찾고, 동업자들을 만나고자 3월 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 3층 거문고홀에서 연 '파라다이스백화점 사업 설명회'는 투자자 700여 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이 백화점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총 6만㎡의 매장과 2만㎡의 주차장을 갖추고 있다.



제주 전통공연 '이어도' 시애틀 유치에 나선 재미동포

재미동포 1.5세인 문민정(32·여) 씨가 미국의 온라인 펀딩 사이트인 킥스타터(www.kickstarter.com/projects/sincerelymin/sincerely-min)를 통해 오는 6월 제주의 공연예술팀 (사)전통예술공연개발원 '마로'를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로 초청한다. 문 씨가 2만 달러(약 2천467만 원)를 목표로 포스트한 계정에는 3월 7일 현재 229명이 2만 3천297달러를 후원해 공연이 성사됐다. 초대작은 제주큰굿을 모티브로 꾸민 '마로'의 작품 '이어도: 더 파라다이스'이다.



월드옥타 LA지회, 한 단계 높인 차세대 무역스쿨 연다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월드옥타) LA지회가 6월 3일부터 3일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 말리부의 페퍼다인대에서 MBA 교수들의 무역·경영 분야 강의, 패널 토론, 정부기관 수출입 담당 전문가의 현장 경험 청취 등 한 단계 높아진 차세대 무역스쿨을 선보인다. 참가자들은 이 대학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며 경영 전문 지식을 배울 계획이다. 차세대 무역스쿨은 재외동포 경제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해마다 열리는 월드옥타의 간판 프로그램이다.



독립기념관 "재외동포 독도 가족 캠프에 참여하세요"

독립기념관 독도학교가 '재외동포 독도 가족 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 2013년 개교한 독립기념관 독도학교는 독도 이해 교육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6월 18~19일, 25~26일 두 차례에 걸쳐 재외동포 초·중·고교생을 둔 가족을 대상으로 캠프를 진행한다.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 밝은누리관과 인근 리조트에서 1박2일 체험 활동을 한다. 6월 초까지 온라인(www.i815.or.kr)과 이메일(sj10197@naver.com)을 통해 참가 신청을 받는다.



도쿄한국문화원 강연회 '더 알고 싶은 한국, 한일 교류'

재일동포 작가·교수, 일본인 학자가 일본 도쿄에서 양국 관계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와 양국의 우호 관계 등을 주제로 릴레이 강연을 펼친다. 주일본한국대사관 도쿄한국문화원은 와세다대 한국학연구소와 함께 도쿄 신주쿠의 한국문화원 한마당홀에서 '더 알고 싶은 한국, 한일 교류'란 주제의 강연회를 오는 4월 7일과 21일, 10월 6일과 20일 등 4차례에 걸쳐 시리즈로 개최한다.



미국 워싱턴 주서 첫 한인 남매 하원의원 탄생 기대

오는 11월 미국 워싱턴 주에서 미주 한인 이민 역사상 처음으로 남매(男妹) 하원의원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3선 의원인 신디 류(한국 이름 김신의·59) 현 의원과 남동생인 샘 김(한국 이름 김군삼·57) 씨가 주 하원의원에 나란히 도전한다. 누나는 제 32선거구 민주당 현역 의원이면서 올해 4선을 노리고, 동생은 제17선거구에서 공화당 후보로 출마한다. 결과는 1차로 예비선거가 열리는 8월 중순, 최종적으로는 11월 8일 확인할 수 있다.



건설업 진출로 시작된 말레이시아 한인 사회 한류 열풍에 동포 사회 동반 성장



1. 아테네올림픽 축구 아시아 최종예선 3차전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경기가 열린 2004년 3월 24일 페탈랑자야 MPPJ스타디움에서 1-0으로 승리한 한국팀 선수들이 말레이시아 동포 응원단에 인사하고 있다.
2. 2008년 11월 1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인근 클랑 항구 내 공단 부지에서 열린 '포스코-말레이시아 창업식'
3.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마약 중독자와 흡연자들을 헌신적으로 치료해 '마약·흡연 치료의 대부'로 통하는 이재형(61) 비바엔리바이벌 대표
4. 말레이시아의 대표적인 동포 기업인 권병해(66) 헤니 권코퍼레이션 회장

외교부 조사에 따르면 2015년 현재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수는 1만 2천690명이다. 그중 9천750명은 쿠알라룸푸르와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조호르 주에 900여 명, 페낭 주와 사바 주에 각각 800여 명이 살고 있다. 사라왁 주에는 347명이 살고 있다.

그러나 한인의 90% 이상은 일시 체류자이다. 말레이시아는 말레이계 우대 정책 등으로 외국인에게는 영주권을 극히 제한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5년 이상 거주하고 말레이어를 하며, 이슬람교 신앙을 가지면 취득 가능하지만 한국인 영주권자는 60여 명에 불과하다. 한국 동포는 대부분은 장·단기 체류 자격만을 부여받고 있는 상태이다.

말레이시아에 처음 한국인이 정착한 것은 세계보건기구가 44명의 의사를 한국에 요구해 한인 의사가 부임하면서부터이다. 또한 베트남을 거쳐서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다. 그 후 말레이시아 건설부의 요청으로 건설 관계자 수 명이 입국했다. 최초의 한국 식당은 장순호 씨 남매가 열었던 '아리랑'이었다. 김여선 씨가 두 번째 한국 식당인 '고려원'을 열었다가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재말레이시아한인회는 1955년 모임이 시작돼 1966년에 정원상 씨가 초대 회장을 맡았다. 초기에는 의사, 건설 관계자, 개인적으로 이주한 한인 등이 모이는 친목단체였다. 당시 비자 유효기간이 2주일밖에 되지 않아 싱가포르까지 기차를 타고 가서 재입국하는 방법을 취하기도 했다. 해외 투자가 늘어나면서 1988년경부터 본격적으로 한인의 진출이 시작됐다. 상사 및 지사의 주재원과 가족, 건설 현장의 근로자 및 직원과 가족 등 동포가 많이 늘었다. 한인회는 1988년 말레이시아 정부에 정식으로 등록됐다.

한인회 사무실은 1988년 4월 10일 쿠알라룸푸르 중심가에 450m²의 공간을 임대해 개관한 것이 처음이다. 말레이시아 한인 사회는 장기 체류하는 한인들과 3년 정도 체류하는 주재원 가족 등 단기 체류자가 섞여 있다. 한인회는 이를 감안해 회장, 부회장, 총무 외에 현지 법인으로 이루어진 진출 업체 이사, 지역 이사 제도를 도입했다. 한인 사회의 단결과 통합을 위해 야유회와 체육대회를 매년 개최하며 연 2회 친선골프대회도 연다. 그 외에 어린이 미술·웅변·글짓기 대회, 바둑 대회, 장기 대회, 사진 전시회, 영화의 밤, 주부 백일장, 민속놀이마당, 불우 이웃 돕기 바자, 송년회 등의 각종 행사를 열고 있다. 1994년도 송년의 밤 행사에는 600여 명이 참석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쿠알라룸푸르와 400km 정도 떨어져 있어 한인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힘들었던 조호르바루 지역 동포들은 지역 한인회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2008년 대사관을 통해 외교부에 단독 한인회로 정식 등록했다. 조호르한인회는 규모는 작지만 소통과 화합이 잘되기로 유명하다.

부인회는 1975년 10월에 창립됐다. 부인회 내에는 사진 예술에 관심을 가진 회원이 모여 만든 '재마 사진 동우회'가 있어 촬영 실습을 통해 친목을 다지고 작품 전시회도 연다. 부인회는 설날에 즈음해 벌이는 윷놀이, 염색 도안 강좌, 말레이어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한인회는 1988년부터 월간으로 '한인회보'를 발행하고 있다. 회보는 경제적인 이유로 잠시 휴간된 일도 있으나 말레이시아 이민사 특집, 현지 진출 기업인 소개, 동포 성공 사례 등 다양한 소식으로 회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토요한글학교는 1974년 12월에 창립됐다. 현지 유치원을 빌려서 유아반(9명) 초급반(26명) 상급반(7명) 중·고등반(10명) 등 총 52명의 학생으로 출발했다. 초기에는 대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던 시가라 삼성·대우·현대·LG·대한항공 등 업체 대표, 한인회 대표, 자영업자 대표 등으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었다.

그 후 학생 수가 늘면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분리해 운영했다. 주중에는 각자 영어 학교, 중국어 학교, 말레이어 학교를 다니는 자녀들이 주말마다 모이는 이 학교는 현재 500여 명의 학생과 30여 명의 교사가 있을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조호르바루에는 1996년에 설립된 한글학교가 있어 21년째 동포 자녀에게 한글을 가르쳐 오고 있다.

2002년 말레이시아 무료 텔레비전 채널 TV3에서 한국 TV드라마 '겨울연가'가 방영됐다. 이후 '가을동화', '꽃보다 남자', '대장금'이 잇달아 방송되면서 현지인들이 한국 대중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한국 음식은 현지인에게 웰빙 음식으로 인식되고 있고, 한국 화장품 업체들도 현지에 진출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말레이시아 동포 중에는 미국이나 호주를 거쳐 정착한 사람이 꽤 있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미국이나 호주와 달리 한국 사람을 대접해 주는 이곳이 좋다"고 말한다. 돈을 크게 못 벌어도 이런 이유 때문에 말레이시아를 떠나지 못한다는 사람도 많다. **창**



5



6

5. 1966년 말레이시아의 대외 원조 자금으로 준공한 경기도 파주 말레이시아고 준공식
6. 한국전쟁 당시 제주에서 창설된 육군 제29사단을 방문한 말레이시아 총영사에게 최홍희 사단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7. 박근혜 대통령과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가 2014년 12월 10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8.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와 연합뉴스가 공동 개최한 제16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가 2011년 10월 2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세계 61개국에서 활동하는 한인 경제인 1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막했다.
9. 2010년 2월 23일 서울 팔레소호텔에서 열린 한국-말레이시아 수교 50주년 기념우표 증정식



7



8



9

한인 역사박물관 '미주 독립유공자 전집' 출판기념회 조국 광복에 힘쓴 215명 '애국지사의 꿈'



1

3월 10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의 옥스퍼드 팰리스 호텔에서 '미주 독립유공자 전집 : 애국지사의 꿈'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언론인 출신 민병용 한인 역사박물관장이 집필한 이 책은 애국지사 215명의 삶과 꿈을 귀중한 사진 850장과 함께 담았다. 출판기념회는 애국지사 후손 초청 독립운동 강연회와 함께 열렸다.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 광복회 미 서남부지회, 한인 역사박물관은 도산 선생의 순국 78주기와 3·1 만세 운동 97주년을 기념하고자 이날 행사를 공동으로 주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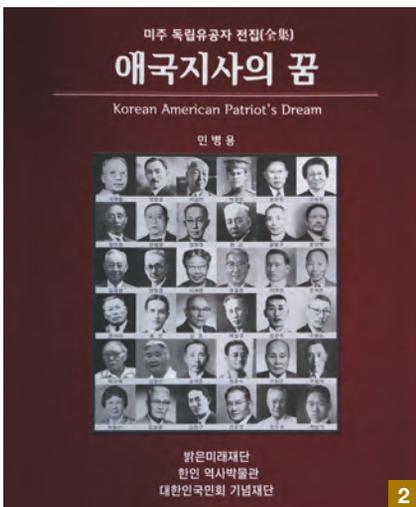
강연회에서 독립유공자 자손들은 집안의 독립운동 이야기를 담담하게 소개했다. 가장 먼저 연단에 오른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1878~1938) 선생의 셋째 아들 램프 안(90) 씨는 “독립유공자의 인생을 총체적으로 다룬 책자의 출간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런 유산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도산이 미국에서 중국 상하이(上海)로 떠나던 1926년에 태어난 그는 아버지 도산의 일대기가 비교적 잘 알려진 탓인지 앞으로 자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연설의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1878년 평안남도 강서에서 태어난 안창호 선생은 1897년 독립협회에 가입해 만민공동회를 개최하는 등 민족 계몽운동을 펼쳤으며 1907년에는 신간회를 조직해 구국운동에 나섰다.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선생은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대리에 올라 독립운동을 이끌었다. 1924년 중국에서 동명학원을 설립해 인재 양성에 힘썼다.

1937년 동우회 사건으로 체포돼 옥고를 치르다가 병에 걸려 1938년 3월 순국한 도산은 생전에 막내아들 램프를 품어보지도 못했다. 아버지에 대한 애뜻한 그리움을 안고 평생을 살아온 안 씨는 아흔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정정한 목소리로 “애국심으로 똘똘 뭉쳐 미국 한인 동포들이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했다”면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지원의 미주 본산인 로스앤젤레스에서 혼신을 바친 부친과 여러 애국지사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경제적 자립을 강조해 미주 독립운동의 위대한 지도자로 통하는 김호(1884~1968) 선생의 외손자 안성주(미국 이름 스투어트 안) 씨는 “외할아버지의 본명은 김정진이었으며 중국에서 김호로 개명한 뒤 미국에 건너와선 찰스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소개했다.

서울에서 태어난 김호 선생은 1914년 도미해 1920년 캘리포니아 주 리들리에 과일 생산·판매 업체인 ‘김브라더스’를 설립했다. 평생 농장을 경영하며 재미동포와 유학생을 위한 육영 사업에 힘쓴 그는 대한인국민회에도 참여했다. 그는 ‘신한민보’를 발행



2

1. 도산 안창호 선생의 삼남 램프 안(90) 씨가 애국지사 후손 초청 독립운동 강연회에 참석해 독립운동가들의 애국심을 잊지 말자고 강조하고 있다.
2.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미주 독립유공자 215명의 삶과 꿈을 사진 850장과 함께 수록한 '미주 독립유공자 전집 : 애국지사의 꿈'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3

해 동포들의 항일 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리들리에 ‘로스앤젤레스 한인센터’를 설립하고 독립운동 자금을 모아 중국 상하이 임시정부에 보냈다.

LA 통합교육구 교육위원회는 지난 2006년 LA 한인타운 3가와 옥스퍼드 애비뉴 인근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의 교명을 그의 미국 이름을 따 ‘찰스 H. 김 초등학교’(Charles H. Kim Elementary School)로 결정했다. 한인은 물론 아시아계의 이름이 미국의 공립학교 이름으로 채택되기는 처음이었다.

1907년 고종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보낸 특사단의 통역으로 활동한 송헌주(1880~1965) 선생의 외증손자인 마크 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고등법원 판사는 “외증조부를 필두로 많은 애국지사가 조국 해방을 위해 열성적으로 나설 수 있던 데엔 가족의 희생이 있었다”면서 “그들에게서 조국을 향한 조건 없는 사랑을 찾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헌주 선생은 경기도 고양(현 서울 마포구) 태생으로 1890년대 후반 관립 영어학교를 졸업하고 1903년께 하와이로 이주, 미국 유학 중 헤이그 특사의 통역을 맡아 5개월간 각국 지도자들에 한국의 독립을 호소했다. 송 선생은 이후 북미 대한민국민회를 재건해 미주 한인사회의 부흥과 항일운동, 그리고 임시정부의 재정 후원에 힘썼다. 또 미국 육군사령부의 허가를 받아 캘리포니아 주 민병대 소속으로 맹호군이라 불리는 한인국방경위대를 편성, 정위로 지원해 군사훈련을 받으며 일본과의 전쟁을 준비하기도 했다.

대한제국의 외교 고문이면서도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미국인 D.W 스티븐스 암살에 나선 전명운 의사(1884~1947)의 사위 표한규 씨는 “장인의 저격 의거는 이후의 열 독립운동의 도화선이 됐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장인환 의사와 함께 1908년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서 거사를 벌였다가 체포된 전명운 의사는 동포 사회의 끈질긴 석방 운동 결과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고 1908년 6월 석방된 이후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다가 1947년 63세를 일기로 생을 마쳤다. **창**



4

- 3. 미주 독립유공자 전집 출판기념회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4. 미주 독립유공자 전집 지면

GLOBAL KOREAN

에세이 '아들이 있는 풍경' 한국서 출간한 재미 작가 **이혜리** **"북한 참상 알리는 일은 나의 사명"**



재미 소설가 이혜리가 쓴 에세이 '아들이 있는 풍경' (디오네·영문명 In the Absence of Sun)이 한국에서 출간됐다. 책은 미국에 사는 86세 할머니가 47년간 생이별했던 북한의 큰아들을 만나러 가는 과정을 담았다. 이혜리는 1997년 자신의 외할머니가 외삼촌을 만나러 가는 길에 동행해 그 과정을 생생한 문체로 되살렸다.

책이 미국에서 출간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출판사들은 '과연 독자들이 북한에 대해 알고 싶어 할까'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던 중 한 작은 출판사가 '한번 도박을 해보자'며 2002년 펴낸 이 책은 탈북자의 현실을 처음 미국에 알려 큰 주목을 받았다. 이혜리는 책 출간 후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와 이산가족의 고통과 탈북자의 현실을 알렸고, CNN·NBC·나이트라인·투데이쇼 등 TV 뉴스에도 출연했다. 또 테드 케네디 상원 의원의 초청으로 이민법 관련 청문회에서 '탈

북민의 현실'을 증언하기도 했다.

책에는 중국을 통해 탈북에 성공한 그의 가족이 실명 그대로 등장한다. 이 중에는 탈북자 1호 박사로 유명한 이애란 경인여대 겸임 교수도 있다. 이 교수는 이혜리의 사촌 언니다. 이혜리는 "책을 처음 쓸 때보다 북한의 상황이 더 나빠졌다"며 "내 책이 북한의 상황을 다시 상기시켰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첫 번째 소설 '할머니가 있는 풍경' (영문명 Still Life with Rice)으로 세간의 이목을 끈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다. '할머니가 있는 풍경'의 주인공은 그의 외할머니다. 이혜리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외할머니가 겪었던 피난 이야기를 소설로 각색했다.

그는 요즘 자신의 부모와 북한의 이야기를 그린 '머치 라이크 유' (Much Like You)라는 1인극을 무대에 올리고 있다. 그는 앞으로도 북한에 대한 발언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도쿄서 '샘물 한글학교' 이끄는 **전정선** 교장

일본 내 조선족 2세에 한국어 교육

일본 도쿄 아라카와(荒川)구 평생학습센터에는 주말마다 책가방을 든 어린이들이 모여 든다.

재일 조선족 2세인 아이들은 일본에서 나고 자라 일본어와 일본 문화가 익숙하지만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생각 하나로 칠판 앞에 모여 앉았다. 이들은 2008년부터 '재일 조선족

여성회'가 자체적으로 설립, 운영해온 샘물 한글학교의 재학생들이다.

한국어와 한국 역사·문화를 가르치는 이 주말학교는 오롯이 자원봉사와 후원금으로 꾸려가다가 8년여 만인 지난해 12월 한국 정부로부터 '재외교육기관'으로 인정됐다.

전정선 교장(60)은 "학생 10여 명으로 시작



한 학교가 어느새 100여 명이 찾아올 정도로 성장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면서 “재외교육 기관으로 등록된 만큼 더 많은 재일 조선족 어린이에게 체계적으로 한국을 알리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 교장은 9년째 재일 조선족 여성회 회장이자 한글학교 교장을 맡고 있다. 자원봉사로 나선 교사 8명과 직원 등 10여 명이 격주 일요일마다 한국어, 한국 역사·문화·전통 풍습 등을 가르친다. 2013년부터는 중국어 수업도 추가했다.

중국 조선족이 유학 등으로 일본 이주를 본

격화한 것은 1980년대 중반부터다. 이들이 일본 회사에 취직하거나 일본인과 결혼하면서 2000년대부터 재일 조선족 사회가 형성됐다. 현재 일본 내 조선족은 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조선족이 일본에 정착해 가정을 꾸리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제기된 것이 2세들의 정체성 고민. 초창기에는 마땅한 공간이 없어 도쿄 인근의 주민센터를 전전하기도 했던 샘물 한글학교는 점차 입소문이 퍼지면서 입학생이 늘어 올해 1학기 유아반과 소학반 등록생이 100명을 넘어섰다.



호주 공영방송 SBS의 **윤재은** PD

TV 한국 음식 코너 진행

호주 공영방송 SBS(Special Broadcasting Service)는 다문화·다문화·다언어 방송사다. 1975년 개국해 TV, 라디오,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을 송출하고 있다. 특히 라디오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74개 언어로 호주 전역에 서비스한다. 이 가운데 한국어 방송은 SBS 창사와 함께 시작됐지만 틀을 갖춘 것은 30년가량 된다. 매일 오후 9시부터 1시간씩 전파를 탄다.

라디오 한국어 방송은 한류 열풍과 한인 사회의 위상 제고 덕분에 청취자가 늘어나고 있고, 비중과 영향력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온라인방송 사이트(www.sbs.com.au/korean)를 찾는 누리꾼도 많다.

이곳에서 ‘한국 알리미’를 자처하는 여성이 있다. 주인공은 서울에서 출생,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가족과 함께 호주에 이민한 윤재은(37) PD다. 매쿼리대 통번역 석사 과정 입학과 동시에 이 방송사에 입사했다.

그는 아버지가 호주뉴질랜드은행(ANZ) 한국 지점에서 오랫동안 근무해 어렸을 때부터 호주가 다른 나라보다는 친근했다. 아버지가 호주인 친구들과 많이 교류하면서 자연스럽게 그의 가족은 호주에 이민했다.

그는 SBS TV·라디오의 음식 프로그램인 ‘키친 컨버세이션’에서 한국 음식을 영어로 소개하는 코너를 6년 동안 진행하며 호주에 한국 음식 붐을 일으키는 역할을 했다. 이 코너 가운데 ‘순두부찌개’는 온라인 클릭 수 8위까지 오를 정도였다.

방송 외에도 여러 행사에서 사회를 맡기도 한다. 2006년 독일에서 월드컵축구 한국-토고전이 열릴 때 시드니 엔터테인먼트센터에 모인 8천 명이 넘는 응원단 앞에서 사회를 맡았고, 시드니 시의회가 주최하는 캄시 지역 음식 축제를 비롯해 각종 예술 공연, 미스코리아 호주선발대회 등의 진행자로 나섰다. **창**



베트남서 인기 배우 등 참여한 ‘K-컬처 서포터즈’ 발족 “동남아 한류 전도사 될게요”

김문성 | 연합뉴스 하노이 특파원

“베트남이 동남아시아 한류의 중심지가 되도록 연기나 태권도, 요리 등 각자의 활동 분야에서 한류 전도사 역할을 할게요.”

주베트남 한국문화원이 한류 확산을 위해 3월 11일 발족한 ‘K-컬처 서포터즈’에는 현지 각계 인사와 학생 등 16명이 참여해 이 같은 의지를 다졌다. 베트남의 인기 배우 레홍당(32)은 K-컬처 서포터즈 출범식 직후 “한국과 베트남의 합작 드라마 출연으로 한국을 더 많이 알게 됐고 서포터즈에 동참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레홍당은 2014년 베트남 국영 VTV3에서 방송돼 동시간대 드라마 시청률 1위를 차지한 한·베트남 합작 드라마 ‘오늘도 청춘’에 출연했다. 이 드라마는 베트남 하노이시의 유복한 집안 딸이 한국 유학 중에 다양한 국적의 포래들과 하숙집 생활을 하며 벌어지는 일을 그렸다.

당은 “베트남과 한국의 문화가 유사해 정서적으로 유대감이 있다”며 “현재 ‘오늘도 청춘’ 2부 촬영을 준비하고 있는데 연기를 통해 두 나라 젊은이들의 우정을 다지고 팬들에게는 한류를 알리는 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응우옌민투(24·여)는 11살 때 방과 후 활동으로 태권도를 처음 접하고 태권도뿐만 아니라 한류에 빠졌다. 그는 그동안 세계태권도대회 남녀 품새 단체전 금메달 3개, 아시안게임 남녀 품새 단체전 금메달 4개를 땀으며 지금은 하노이시 태권도팀 코치 겸 선수로 활동하고 있다. 응우옌민투는 “페이스북을 통해 음식, 음악, 영화 등 다양한 한국 문화를 대했다”며 “태권도와 관련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K-컬처를 전파하는 서포터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요리 블로거 판응옥아인(36·여)은 “베트남 사람이 한식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이 아직 부족하다”며 “한식 요리 강좌를 직접 운영하고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요리법을 소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년 베트남 내 한국식당 안내 책자 제작에도 참여한 그는 지난해 6월 한국대사관 주최로 열린 한식 요리



1. 주베트남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베트남 K-컬처 서포터즈 출범식
2. K-컬처 서포터즈에 참여한 베트남 인기배우 레홍당. 그는 2014년 베트남에 방영된 한·베트남 합작 드라마 ‘오늘도 청춘’에 출연했다.
3. 하노이시 태권도팀 코치 겸 선수인 응우옌민투(왼쪽)와 박낙중 주베트남 한국문화원장. 투는 “태권도와 관련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K-컬처를 전파하겠다”고 말했다.

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다.

베트남의 유명 피아니스트 쟁진(31)도 K-컬처 서포터즈로 이름을 올렸다. 그는 남편인 한국인 테너 박성민(34) 씨와 함께 하노이 고아들로 구성된 ‘미러클 합창단·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있다.

박낙중 주베트남 한국문화원장은 “베트남에서 한류에 대한 관심과 열풍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뜨겁다”며 “한국 문화를 여러 방면에서 깊이 있게 알릴 수 있는 행사를 서포터즈와 함께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

CIS지역 고려인 동포 방문취업 제도 개선 가족 복수비자 발급 등 편의 확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고려인 동포 방문취업(H-2) 비자 입국 인원 확대 등 외국 국적 동포 업무 개선 사항을 정해 지난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고려인 동포의 입국을 늘리고자 방문취업 비자 발급 인원을 기존보다 1천 명 늘어난 연간 1만 1천 명으로 확대했다. 국가별로는 우즈베키스탄 7천 명, 카자흐스탄 1천 500명, 키르기스스탄·우크라이나 각 1천 명, 타지키스탄 500명이 배정됐다.



서울 영등포구 한국산업인력공단 남부지사서 열린 '외국국적 동포 구인 구직 만남의 장'에서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동포들이 일자리 상담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해 4월에도 고려인 동포의 방문취업 인원을 8천 명에서 1만 명으로 늘린 바 있다. 이는 국내 방문취업 체류 인원이 중국 동포(조선족)는 27만여 명인 데 비해 고려인은 1만 4천여 명에 불과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

방문취업 동포의 가족에 대한 처우도 개선된다. 방문취업 동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기존에 단기비자를 발급받고 한국에 와 체류 자격을 변경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장기 체류가 가능한 방문동거(F-1) 복수비자를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다. 방문취업 동포의 미성년 자녀가 국내에 체류하다가 성년이 된 경우 기존에는 체류 자격 변경 등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부모의 체류 기간까지 국내에 머물 수 있다.

방문취업 신규 입국자에 대해서만 실시되던 기초 법·제도 교육이 모든 방문취업 자격자로 확대된다. 이는 제도·문화적 차이로 인한 범죄를 예방하고, 국내 체류 편의 지원을 위한 것이다.

한편 재외동포 자격자가 영주 자격을 신청하려면 기존에는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재산세 납부 실적이 50만 원이 넘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재산세 실적 기준이 100만 원 이상으로 높아진다.

방문취업 제도는 중국 및 CIS 지역 등에 거주하는 외국국적 동포에 입국 문화와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만 25세 이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자유로운 출입국과 취업 활동이 가능한 사증을 발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폐쇄등록부·제적부에 등재돼 있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유학(D-2) 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사람의 부모 및 배우자 등 대상 동포는 5년간 사용할 수 있고 1회 3년까지 체류할 수 있는 복수사증을 발급받는다.

활동 범위도 방문, 친척과의 일시 동거, 관광, 요양, 견학, 친선 경기, 비영리 문화예술 활동, 회의 참석, 학

술 자료 수집, 시장 조사·계약과 같은 상업적 용무, 판매업·음식점업·서비스업을 비롯한 산업 분야에서의 활동 등 다양하다.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는 노동부 취업 교육을 마치고 구직 신청 후 허용된 업종 범위 내에서 고용지원센터의 취업 알선을 받거나 특례 고용 가능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에 자율적으로 취업할 수 있으며 신고만으로 사업체 변경이 가능하다.

외국국적 동포 취업 교육 홈페이지(<http://eps.hrdkorea.or.kr/h2>)는 한국어가 서툰 동포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중국어·러시아어를 모두 지원한다. **[참]**

Q&A

외국국적 동포로서 국내 호적이나 친인척이 없어 일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무연고 동포는 어떻게 선발합니까?

무연고 동포는 국적별 할당 인원 범위 내에서 중국국적 동포는 한국어 시험과 추첨으로, CIS 지역 동포는 한국어 시험 없이 일정 기간 사증 추첨 신청서를 접수해 추첨으로 선발합니다. 추첨은 무작위 공개 컴퓨터 추첨 방식이고, 연간 허용 인원수에 대한 국적별 할당은 법무부 장관이 거주국별 동포의 수 등을 고려해 매년 결정·고시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 30억 달러 금융 협력 양해각서 체결



▲ 박근혜 대통령과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했다.

◀ 박근혜 대통령과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3월 3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3월 3일 청와대에서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경제·통상·인프라 건설 협력, 개발 협력, 문화·교육 협력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최대 36억 달러에 이르는 이집트 인프라 사업 참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 등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9건의 양국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집트는 2014년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제2 수에즈 운하 건설 등 대형 인프라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양 정상은 플랜트, 메트로, 철도 등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하기로 했다. 우선 이집트 국방부가 올해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인 7억5천만~8억5천만 달러 규모의 해수 담수화 프로젝트 수주 경쟁에 우리 기업이 나서기로 했다. 또한, 올해 타당성 조사가 이뤄질 예정인 25억 달러 규모의 카이로 메트로 5호선 사업에도 우리 기업의 참여를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에 관한 기본 협정'을 기반으로, 이집트의 철도 시스템 현대화 사업도 벌이기로 했다. 철도 전자 연동 시스템과 중앙 통제 시스템, 통

신 설비 등을 구축하는 데 1억1천500만 달러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아울러 양국은 '한·이집트 항만 개발 협력 MOU'를 토대로 항만 개발 및 운영 기술·경험을 공유하고 시공·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공동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 같은 대형 인프라 사업에서 한국 기업의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양국은 총 30억 달러 규모(수출금융 23억 달러·EDCF 7억 달러)의 '금융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 정상은 2008년 이후 20억~30억 달러 선에 머물고 있는 양국의 교역 규모도 더욱 확대하고 이집트 내 투자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전자·섬유·자동차 부품·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한·이집트 통상·산업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밖에 이집트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달러 환전·송금과 노동 허가 취득, 의약품·의료 기기 수출 등에서 겪는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는 성명을 이집트 외교부가 발표한 것에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공동선언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확인했다. **창**

“재외동포 관련 논문·UCC 공모에 도전하세요”

재외동포재단은 동포 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학위 논문 및 UCC(사용자제작콘텐츠) 공모전을 연다.

‘2016 재외동포재단 학위논문상’으로는 동포와 관련한 국내외 석·박사 논문 가운데 심사를 거쳐 11편을 선발한다.

재단은 동포 사회의 현안을 분석하고 내 외국인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한 논문 가운데 우수작을 뽑는다. 이전까지는 논문 완성작에만 시상했으나 올해부터는 폭넓은 연구를 장려하고자 작성 예정 단계에 있는 논문 계획서도 심사에 포함했다.

최우수상에 외교부 장관 상장과 300만 원을 수여하는 등 학술 장려금을 지급한다.

오는 6월 30일까지 응모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코리아넷(www.korean.net)을 참조하면 된다.

‘2016 재외동포재단 UCC 공모전’에서는 자유로운 주제 아래 동포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영상을 뽑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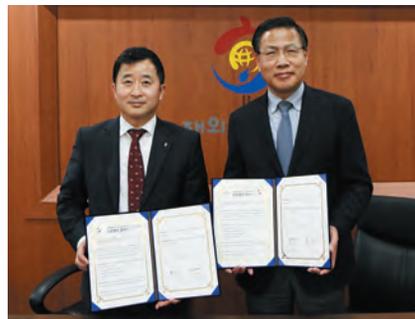
자랑스러운 재외동포, 동포 사회 생활상, 통일과 재외동포의 역할 등 다양한 화두를 다큐멘터리, 뉴스, 영화, 패러디, 뮤직비디오, 애니메이션 등으로 담아내면 된다.

최우수상에는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상장과 200만 원을 수여하는 등 8편을 시상한다.

참가 신청은 오는 7월 31일까지, 영상 제출은 8월 31일까지 코리아넷을 통해 할 수 있다.

학위논문상 입상작은 논총집으로 제작하고, UCC 우수작도 유튜브(www.youtube.com)에 올려 널리 선보일 계획이다.

재외동포재단, 한컴과 손잡고 각국 한글학교 지원



재외동포재단은 세계 각국의 한글학교 지원을 위해 3월 30일 서울 서초구 재외동포재단 대회의실에서 한글과컴퓨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재외동포재단은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와 손잡고 세계 각국의 한글학교 지원에 나선다.

양측은 3월 30일 서울 서초동 재외동포재단 대회의실에서 ‘재외동포 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한컴은 2천여 개에 달하는 전 세계 한글학교에 문서 작성 소프트웨어인 ‘한컴오피스 NEO’를 기증한다.

연수를 받으러 한국을 방문한 한글학교 교사에게 사무용 소프트웨어 활용 교육을 시행하고, 각국 동포에게 한국어 교육을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이번 협

약으로 전 세계 한글학교에 우수한 국산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게 됐다”면서 “한글학교는 글로벌 코리아를 육성하는 거점인 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필 한컴 대표는 “우리의 일이 담긴 최고의 문화유산인 한글을 재외동포에게 널리 알릴 수 있게 됐다”면서 “동포들이 쉽고 효과적으로 한글을 익히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영 비즈니스 리더 포럼’ 참가자 모집

재외동포재단은 차세대 동포 기업인의 교류 행사인 ‘영 비즈니스 리더 포럼’(Young Business Leaders Forum)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 포럼은 오는 9월 제주에서 열리는 ‘제15차 세계한상대회’ 행사 중 하나로, 국내에서 활약하는 청년 기업인이 한자리에 모여 경영 역량을 키우는 자리다.

포럼은 9월 26~29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리며, 기업 전시회·네트워킹 세미나·비즈니스 포럼 등이 이어진다.

전체 인원 150여 명 중 신규 참가자 50여 명을 모집하며 만 45세 이하인 재외동포 기업인, 경영 전문가, 청년 창업가 등이면 지원할 수 있다.

거주국 공관, 경제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오는 5월 20일까지 신청서를 내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hansang.net)에서 볼 수 있다.

'싱가포르 디자인 위크'에 선보인 디자인 한류 아시아, 유럽이 K-디자인 주목

채혜미 | 재외동포의 창 싱가포르 통신원



'인테리어 디자인 & 라이프 스타일 서밋 프로그램'에 한국인 연사로 처음 초빙된 조수용 조&컴퍼니 대표

매년 3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싱가포르 디자인 위크'에 단연 돋보이는 국제 행사는 프랑스의 '메종 & 오브제'가 주관하는 '메종 & 오브제 아시아 퍼시픽 2016' 인테리어 디자인 전시회이다.

지난 3월 8일부터 11일까지 싱가포르의 랜드마크인 마리나 베이 샌즈의 컨벤션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세계 여러 나라의 인테리어와 건축에 대한 디자인 제품 및 주거 중심의 생활용품들의 최신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박람회 개막식에는 각 나라의 인테리어 디자인 분야의 종사자들과 바이어들이 참석했다.

올해는 국기와 브랜드이름과 QR코드(Quick Response Code)가 표시돼 있는 부스를 설치해 화려한 색상과 독특한 디자인으로 확일화된 여느 전시회와 달리 차별화된 분위기가 돋보였다. 상품에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각각의 부스가 마치 하나의 설치미술 작품을 방불케 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싱가포르, 일본, 인도, 한국 등 아시아 국가는 물론 미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덴마크, 스페인 등 구미 여러 나라도 참여했다.

첨단 소재들과 발전된 새로운 기술을 가진 약 300여 개의 업체가 가구, 조명, 장식품, 홈패브릭, 주방용품, 욕실용품, 패션, 사무용품, 어린이용품, 옥외용품, 카펫 등의 다양한 분야의 디자인 상품을 선

보였다.

미래의 디자인 산업은 우리의 삶에 과연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며, 오늘날 디자인 산업은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지 흐름을 느낄 수 있는 전시회라고 평가받았다.

대회 기간 주목 받은 광주디자인센터

이번 전시회에 태극 문양 로고를 부착한 유일한 한국 부스인 '광주디자인센터'는 다양한 디자인 상품으로 관람객의 시선을 끌었다.

올해는 다양한 부대행사들로 관람객은 물론 디자이너와 참여 기업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주최측은 잠재력과 재능을 가진 디자이너와 회사를 발굴해 '라이징 아시안 탤런트 2016(Rising Asian Talents 2016)' 상을 수여하는데 올해는 호주, 일본, 싱가포르, 대만, 태국, 필리핀의 인테리어·디자인·건축 회사가 선정됐다.

지난해에는 한국인으로 네덜란드에서 활동하는 가구 디자이너 박원민 씨가 레진(수지)으로 만든 예술적인 가구를 선보여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장인 정신 혹은 디자인 철학과 창의성이 부각되는 디자인 세계를 이끌며 급변하는 트렌드와 흐름을 주도하는 디자이너에게는 '올해의 디자이너' 상이 주어진다. 올해는 홍콩 출신의 앤드루 후에게 영예가 돌아갔다.

'앤드루 후 리빙'이라는 자체 브랜드를 내세워 건축과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두각을 나타낸 그는 싱가포르의 풀러턴 베이 호텔, 서울의 포시즌 호텔의 키오쿠 레스토랑, 일본 도쿄의 모티프 등의 건축물과 인테리어에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해 아시아의 건축 및 인테리어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받았다.

시상식에서 만난 '리드 케이 페어 익스비전즈'의 흥혁진 부장은 디자인 한국의 미래에 대해 "최근 수상자의 대부분이 아시아계 디자이너인 것은 그동안 유럽이 주도했던 디자인 분야의 흐름이 이제 아시아로 넘어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메종 & 오브제 같은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전시회를 통해 K-브랜드, K-디자인 등도 새롭게 평가받고 있어서 곧 한국 디자인 실력이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지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1. '메종 & 오브제 아시아' 행사에서 주목을 받은 광주디자인센터 부스
2.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컨벤션에서 3월 8일부터 11일까지 '메종 & 오브제 아시아 2016' 이 열렸다.
3. '메종 & 오브제 아시아'의 광주디자인센터 부스는 최근 K-디자인 등 '디자인 한류' 바람이 불 정도로 관계자와 관람객 등으로 인파가 몰렸다.

'메종 & 오브제'의 하이라이트는 세계적인 디자이너와 건축가를 연사로 초빙하는 '인테리어 디자인 & 라이프 스타일 서밋 프로그램'이었다.

이 자리에 조수용 조&컴퍼니 대표가 한국인으로는 처음 연사로 초청됐다. 그는 연단에 올라 자신의 회사가 4개의(·식·주·정보)의 프로젝트를 통합 운영한 사례를 소개하며 균형 잡힌 브랜드를 추구하는 노하우를 전했다.

그는 정보 분야의 사례로 현재 세계 15개국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매거진B'를 들었다. 매거진B는 획기적으로 광고를 전혀 안 싣고 편집을 한 영문 디자인잡지로 2013년에 칸 국제광고제 디자인 크래프트 부문에서 정기간행물 최초로 은사자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주생활 부분의 사례로는 '조&컴퍼니'가 인테리어 디자인에 참여해 새로운 관점의 호텔 이미지를 구현했다고 평가받은 한국의 네스호텔과 글래드호텔의 디자인 콘셉트를 소개했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발돋움하는 '디자인 한류'

한국은 디자인 수준에서 결코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글로벌 마케팅이란 관점에서 보면 그동안 세계 무대에 자신의 디자인 상품을 알릴 기회가 충분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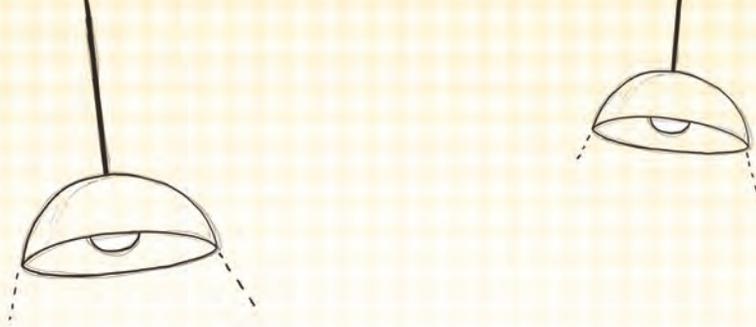
한국의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시점에 광주디자인센터가 싱가포르에서 열린 '메종 & 오브제 아시아 2016'에서 광주 지역 9개의 디자인 기업과 함께 참여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에 생활용품, 사무용품, 문구류 등 30여 종의 품목을 알린 것은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신호탄으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왜냐하면 특히 아시아에서의 디자인 리더 국가로 꼽히는 한국은 이제는 '디자인 한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끌어내기에 충분한 시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신선한 아이디어와 신소재의 융합으로 K-디자인의 새로운 세계를 보여준 이번 전시회에서 한국 기업은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호주, 미국, 프랑스에서 온 바이어들과 160여 건의 상담을 통해 770만 달러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광주디자인센터는 동남아를 비롯해 세계 각국과 교류를 넓히기 위해 '아시아 디자인 포럼',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등을 주도해 왔다. 광주시도 '아시아 예술의 전당' 개관과 광주 비엔날레 등의 개최를 통해 아시아에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로 광주를 알리는 데 앞장서왔다. 문화예술 도시라는 이미지는 글로벌 시대에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디자인 산업의 육성과 홍보에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전시회에서 만난 신호상 광주디자인센터 기업지원팀의 선임연구원은 국가 유망 산업으로 디자인 분야의 발전과 육성을 위해 아시아 국가 간의 네트워크 확장과 신진 디자이너 발굴·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디자인센터는 기업, 디자인 연구기관, 교육 단체 등과의 친밀한 교류와 협력을 위해서 동남아 곳곳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국의 상하이와 선전, 그리고 홍콩 등지에서 열리는 디자인 메가쇼에도 참여합니다. 한국의 디자인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과의 활발한 교류도 추진중입니다. 더불어 내부적으로는 '코리아 디자인 멤버십' 시스템을 통해 지역 내의 젊은 디자이너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별꽃 먹는 청소부

신현숙 호주 | 2015 동포문학상 시부문 가작

한 사내의 등에 실려
새벽 세 시를 밝히는 청소기
굽은 어깨 내려놓고 바닥에 눕다

오늘도 해진 작업복
밑단 안에 쌓인 마른 먼지 털어내고
시집 접고 있으니 반쯤 감긴 눈빛이
왕십리 양철지붕에 매달리고 흔들리는 그림자
알전구 아래 엄마 손이 소쿠리에서
바느질거리 하나씩 꺼내고 있다

깨알처럼 별꽃 박힌 골무
자신의 상처는 삼킨 채
손톱마저 무뎠던 여인의 검지를 싸매고
실패에 꽃힌 굵은 바늘
영커버린 아버지의 술주정이나 바람기
마른 풀뿌리 뾰뚱 울음이 꺾매다
한 끝이 부러진 아픔 참아내는 가위도
두꺼운 가난 조금씩 잘라내고
저 홀로 웅글어진 단추는
노름에 세월 뜯긴 날건달 오라비까지
군복잠바에 단단하게 매달린다

천정 위의 푸른 빛, 알전구도 조는 밤
나일론 양말 비집고 나온 허기
거북손에서 한 톱 한 톱 기워지고 참
맛있게 먹고 있는 사내
밥에서도 별꽃 모락모락 피어난다
울워스, 맥도날드 바닥에 비치는
저 낮은 새벽별
내일도 유난히 푸르다 창



바른 말 고운 말

|| 것볼 / 결볼 우리 속담에 '양반은 얼어 죽어도 것볼은 안 쫓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볼'이라는 말은 '겨' 밑에 'ㅅ' 받침을 쓸까요, 아니면 'ㅌ' 받침을 쓸까요?

'겨' 밑에 'ㅅ' 받침을 쓰는 것은 쌀겨나 보릿겨와 같은 곡식의 겨를 태우는 불을 가리키는 말이고, 'ㅌ' 받침을 쓰는 것은 불 쬐는 사람 곁에서 쬐는 불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 속담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겨' 밑에 'ㅅ' 받침을 쓰는 '것볼'입니다.

겨를 태우는 불은 활활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불이 느긋하면서도 끊이지 않고 꾸준하게 타오르기 때문에 불기운이 약하고 신통치 않습니다. 그래서 '것볼'이라는 말은 이와 같이 신통치 않거나 시원치 않은 것을 비유하는 말로도 쓰입니다.

이 속담은 옛날 양반들은 아무리 추위도 이렇게 시원치 않은 것볼은 쬐지 않을 만큼 체면을 중시했다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 반딧불이 우리가 잘 아는 한문 속어 가운데 '형설지공'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은 고사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옛날에 집안이 가난해서 기름 살 돈이 없던 사람이 여름이면 몸에서 불빛을 발하는 벌레를 수십 마리씩 잡아서 비단 주머니에 담아 넣고 글을 비추어 가면서 공부했고, 겨울에는 벌레를 구할 수가 없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눈에 반사돼서 나오는 빛으로 글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도 꾸준히 학문에 힘쓰는 것을 일러 '형설지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빛을 발하는 벌레를 '반딧불'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벌레의 이름은 '반딧불이'이고, '반딧불'은 반딧불이의 꿈꾸니에서 반짝이는 인의 불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 일본 등지에 분포하는 반딧불이과의 딱정벌레인 '반딧불이' 성충은 여름철 물가의 풀밭에서 사는데 밤에 반짝이며 날아다니고 수초에 알을 낳습니다.

낱말 맞추기 _ 퀴즈를 풀며 정확한 표현을 익혀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오른쪽 방향 열쇠

- 강원도의 북부에 있는 명산 기암괴석이 많고, 곳곳에 폭포와 못이 있어 경치가 매우 아름답다. 높이는 1,638m. 내무재의 서쪽을 내금강, 동쪽을 외금강, 바다에 솟아 있는 성들을 해금강이라 부른다.
- 세균 따위의 영향으로 벌레가 파먹은 것처럼 이가 침식되는 질환. 또는 그 이. 흔히 염증이 생기고 통증을 일으킨다.
- 주로 극지방에서 초고층 대기 중에 나타나는 발광(發光) 현상. 태양으로부터의 대전 입자(帶電粒子)가 극지 상공의 대기를 이온화해 일어나는 현상으로, 빨강

- 파랑 · 노랑 · 연두 · 분홍 따위의 색채를 보인다.
- 나라의 독립을 이루기 위해 싸우는 군대
- 딸의 남편을 이르는 말
- 잠이 들게 하는 약
- 여름철에 여러 날을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현상이나 날씨. 또는 그 비
- 중추신경에 작용해 환부의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약
- 나무로 만든 32쪽의 말을 붉은 글자와 푸른 글자의 두 종류로 나누어 판 위에 벌여 놓고 서로 번갈아가며 공격과 수비를 교대로 해 승부를 가리는 놀이
- 자기가 그린 그림을 스스로 칭찬한다는 뜻으로, 자기가 한 일을 스스로 자랑함을 이르는 말
- 희곡에서, 해설과 대사를 뺀 나머지 부분의 글. 인물의 동작, 표정, 심리, 말투 따위를 지시하거나 서술한다.

- 일어나서 섬
- 어떤 자리나 모임에 초대하는 뜻을 적어서 보내는 편지
- 원본을 베끼
- 군대 유지와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물품
- 진학 또는 진급을 못 함
- 양철을 써서 동근기둥 꼴로 만든 통조림통 따위의 통
- 사건이나 소동 따위를 일으킨 근원이 되는 곳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받은 사람
- 밥에 곁들여 먹는 음식을 통틀어 이르는 말
- 기관차에 여객차나 화물차를 연결해 궤도 위를 운행하는 차량. 사람이나 화물을 실어 나른다.
- 활시위에 매워서 당겼다가 놓으면 그 반동으로 멀리 날아가도록 만든 물건

▶ 아래쪽 방향 열쇠

- 무감치의 하나. 흔히 겨울철에 덩는 것으로 소금에 절인 통우에 꿇인 소금물을 식혀서 붓고 심심하게 담근다.
- 금으로 만들거나 금으로 도금한 메달. 주로 운동 경기나 그 밖의 각종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준다.
- 난방 장치의 하나. 나무, 석탄, 석유, 가스 따위의 연료를 떼거나 전기를 이용해 열을 내어 방 안의 온도를 올리는 기구이다.

▶ 3월호 정답

입	삼	일	절	마	네	킹
춘	추	반	거	지		
	도	인	연	기	지	개
편	식	세	면	각		
지	원	목	도	장		
지	도	사	당	창	소	
	마	귀	번	개		탐
바	마	권	선	군	대	
지	우	개	문	패	실	



충남 보령시 오천항의 키조개 청정해역서 맛보는 천상의 맛



진한 갈색의 껍데기 속에 담긴 하얀 속살은 보기만 해도 입에 군침이 돌게 한다.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오천항에 가면 입안에 한가득 향긋한 바다 내음을 전해주는 키조개가 다양한 맛으로 미각을 자극한다. 봄의 정취를 찾아 여행을 떠난다면 서해안에 들러 바다를 품은 키조개 요리를 맛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봄날에 꼭 맛봐야 할 해산물 중에서 키조개를 빼놓을 수 없는 것은 4~5월에 가장 크고, 맛도 좋기 때문이다. 지금 충남 보령의 오천항에 가면 커다란 껍데기에 하얀 관자를 품고 있는 키조개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가 기다리고 있다.

봄날 오후 오천항에 가면 파스한 햇살 아래서 오수를 즐기는 듯한 작은 고깃배들을 볼 수 있다. 모든 것이 정지돼 마치 화폭에 담긴 풍경화를 연상시킨다. 자세히 보면 그 풍경화 속에서 어부들이 어선을 넘나들며 어구를 손질하고 있다. 항구와 나란히 달리는 도로 한쪽에 선 트럭이 달려와 망에 담은 키조개를 바닥에 부러놓는다. 키조개를 손질하는 아주머니의 손이 분주해졌다. 한 손으로 키조개를 붙잡고, 껍데기 틈으로 날카로운 칼을 집어넣자 이내 반짝반짝 윤이 나는 검은색 껍데기 안에서 하얗고 둥그란 관자가 모습을 드러낸다.

키조개는 청정 해역을 자랑하는 보령뿐만 아니라 전북 군산, 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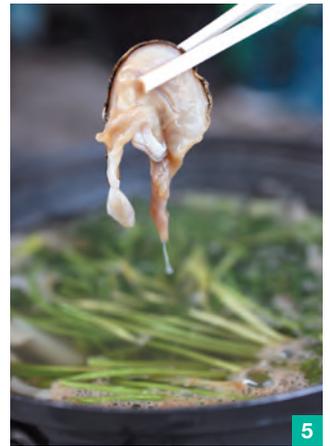
남 장항·서천·서산, 인천 용진, 전남 고흥·장흥 등 서해안과 남해안 연근해에서 많이 잡히고 있다. 그러나 남해안보다는 서해안에서 잡히는 것이 관자가 더 크고, 그중에서도 보령 해역의 키조개를 최고로 친다. 곡식에서 돌이나 쪽정이를 걸러내는 농기구인 키를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은 키조개는 다른 조개보다 부드러우면서 쫄깃하고, 향긋하며 달짝지근한 것이 특징이다.

키조개는 흔히 조개구이를 먹을 때 함께 나와 고추장, 양파, 고추 등의 갖은 양념과 함께 냄비에 조리 내거나 찻고추, 마늘, 초고추장을 이용해 오븐에 구워낸다. 그러나 오천항에서는 구이는 물론 회, 사부사부, 꼬치, 전골, 탕, 죽 등 다양한 조리법으로 맛볼 수 있다.

회는 큼직한 키조개 3~4개를 잡아 내장을 도려낸 후 관자를 두툼하게 썰고, 외투막과 동물의 생식기에 해당하는 입·출수관을 분리해 접시에 함께 담아낸다. 겨자를 섞은 간장이나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데 관자는 부드럽게 씹히고, 외투막은 쫄깃하며, 입·출수관은 아삭거릴 정도로 씹는 맛이 일품이다. 오래도록 씹다 보면 바다의 향기가 입안을 가득 채우며 행복감에 젖게 한다.

사부사부는 넓은 냄비에 미나리, 무, 대파, 팽이버섯, 양파를 넣고 국물이 우러나오면 회로 나온 키조개를 집어넣어 익혀 먹는다. 관자는 회로 먹을 때보다 쫄깃한 맛이 더해져 좋지만 나머지 부위는 사부사부로 먹으면 너무 딱딱해져 회로 먹는 것이 낫다.

평평한 철판에 버섯, 대파, 양파와 함께 고추장, 깨 등 갖은 양념을 넣고 굽는 철판 양념구이도 있다. 적당히 익으면 관자를 채소와 함께 젓가락으로 집어 먹으면 되는데 부드러운 관자가 채소, 매운 양념과 어우러지며 미각을 한껏 자극한다. 키조개 본래의 향과 맛은 느낄 수 없지만 입안에 감도는 부드러움과 매운 맛은 적당히 뒤섞이며 침을 한껏 고이게 한다. **[참]**



1. 보령시 오천면 오천항에서 어민들이 갓 채취해 온 키조개를 어선에서 내리고 있다.
2. 하늘에서 내려다본 보령 오천항
3~5. 오천항에서는 키조개를 회, 사부사부, 전골, 꼬치, 탕, 죽 등 다양하게 맛볼 수 있다.

▶ 충청수영성



오천면에는 조선시대 충청 지역 수군 지휘부였던 사적 제501호 충청수영성이 있다. 충청수영성에는 현재 서문에 해당하는 흥예문, 어려운 백성을 돌보던 진흥청, 장교들의 숙소였던 장교청, 성곽 등이 보존돼 있다. 충청수영성의 대표 시설인 누각 영보정(永保亭)은 1504년(연산군 11년) 충청수사 이량(李良)에 의해 창건돼 7차례 중·개수를 거쳤고 1878년(고종 15년) 화재로 소실된 이후 2015년 11월에 다시 복원됐다.

▶ 보령시 여행 정보

- **당일 여행 코스**
오천항 → 대천해수욕장 → 남포방조제 → 무창포바닷길 → 보령호 → 성주산휴양림
- **관광 안내**
보령시 관광과(041-930-3542)
<http://www.brcn.go.kr/tour.do>
- **대중교통**(서울 - 보령)
고속버스(2시간 10분 소요) / 기차(2시간 30분 소요)
- **식당 정보**
청해회수산(041-932-4017) / 천수만가든(041-932-5678)



Tip

“글솜씨 뽐내세요” 재외동포 문학상 공모

재외동포재단이 5월 17일까지 '제18회 재외동포문학상' 작품을 공모한다.

재외동포 사회에서 문예 창작을 즐기는 이들의 축제로 자리 잡은 이 공모전에는 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또는 외국 7년 이상 장기 체류자로 한글문학 창작에 관심 있는 성인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초등학생(만 7세 이상 13세 미만)과 중·고등학생(만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나뉘는 청소년 글짓기 부문의 참가 자격은 외국 체류 기간이 5년 이상이다. 성인은 자유 주제로 시(3~5편)와 수필·단편소설(3편 이내)에 응모할 수 있다.

청소년은 '재학 중인 한글학교와 거주 지역 소개', '모국 방문과 한국어 학습 경험담', '자랑스러운 한국인과 한국 및 재외동포에 관한 글' 등을 주제로 한 글(3편 이내)을 제출하면 된다. 산문과 운문 등 형식에 제한이 없다.

한글학교의 한국어 작문 등을 장려하기 위해 '한글학교 특



별상'도 마련한다. 청소년 부문에 응모한 학생의 본심 진출 및 수상작 수 등을 기준으로 수상 학교를 선정한다.

입상작은 7월경 홈페이지(www.korean.net)에 발표되며 당선자에게도 개별 통지된다. 대상, 우수상, 가작, 장려상 등 총 30명에게 상패와 50만~3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재단은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넓히기 위해 국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5회 국내 청소년 재외동포 글짓기 대회' 작품도 공모한다.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재외동포', '나의 친·인척 재외동포', '국적은 달라도 우리는 한 가족' 등 재외동포와 관련된 자유 주제로 3편까지 출품할 수 있으며 공모 마감은 5월 17일이다.

자세한 내용은 코리아넷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담당자(☎02-3415-0186)에 문의하면 된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정부 3.0이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 과제에 대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입니다.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모아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고 특별한 내일을 준비합니다. 개인의 행복이 커질수록 함께 강해지는 새로운 대한민국 그 희망의 시대를 정부 3.0이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중점 추진 과제

•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민·관 협치 강화

•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정부 내 칸막이 해소,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 운영 시스템 개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창업 및 기업 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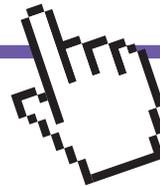
재외동포의 모든것,

KOREAN  NET 으로 통합니다.



재외동포 전문포털 코리안넷

www.korean.net



재외동포 관련
다양한 정보제공



한국 역사
한국 문화 콘텐츠



주요 재외동포
인물·단체 정보



재외동포단체 홈페이지
제작·지원 서비스



온라인 초청
지원사업 신청



재외동포단체
SNS 서비스



비즈니스 교류
및 정보 제공



한국어 한국문화
학습 콘텐츠

WWW.KOREAN.NET

WWW.KOREAN.NET

WWW.KOREAN.NET

WWW.KOREAN.NET

WWW.KOREAN.NET

EUROPE
147,000

CIS
480,000

CANADA
224,000

USA
2,250,000

CHINA
2,590,000

JAPAN
856,000

MIDDLE EAST
26,000

AFRICA
12,000

SOUTHEAST ASIA
325,000

OCEANIA
185,000

CENTRAL AND
SOUTH AMERICA
105,000

“이민으로 해 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그 힘은 720만 재외동포입니다.”

재외동포재단, 세계 72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